



시험·연구장비 1500종 32개 기관에 이관  
 연구기관과시험검사기관등이 보유하고있는 시험·연구장비의 활용도를높이기위해기존의아나바다운동을점목하여추진해온 「시험·연구장비 활용혁신운동」의 성과를내고있다.  
 산업자원부는한·미FTA 타결직후인지난5월부터 국민소득3만불, 무역조불시대도약의발판 마련을위해 범국가적기술인프라혁신 운동을펼치기로하고, 먼저산업자원부의9개 장비보유유관기관을대상으로1단계업무를추진해왔다.  
 그동안추진한결과로11월 6일(화) 11:00,기술표준원에서 「기술인프라파트너십장비이관협약식」을 개최하고, 타기관기관을통해활용도를높일수 있

다고조사된약 1,500종의 장비(약330억원 상당)를 32개 기관에이관하였다.

오영호산업자원부제1차관은협약식치사를통해“ 장비 활용혁신을 위해유관기관이자율적·실천적으로참여하는기술인프라파트너십을결성하여추진해온 사업이일정한성과를거두어, R&D와시험 분석에소요되는기간도상당수준단축되고질적수준도높아짐으로써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이번 혁신운동이정착되면장비에대한 중복 투자방지로국책 연구사업의예산 절감효과가크고, 해외시험의뢰비용절감및 외산장비수입감소

등으로년간2,400억원이상의경제적효과가있을 것으로전망된다.

\* 현재국내이용장비중약8%가외산장비이며, 특히첨단정밀장비는대부분외산인것으로분석됨

이번 혁신운동의배경은최근FTA 확산으로시험· 분석서비스시장의개방요구가거세지고, 기술융합등 급격한기술발전으로새로운첨단장비의 확보여부가기술개발의성패를좌우하는경향이 있어첨단장비의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시간내에이러한장비수요를충족시키기 어려운면이있음을감안하여, 우선미국내에 구축된장비를적재적소에재배치하고공동활용을 실천에옮기도록함으로써장비활용의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이기위한것이다.

\* 시험· 분석서비스시장은국내2.2조원(세계시장50조원)으로그중40% 이상을몇몇대형국기관이잠식(국내기관약1,500개)

\* SGS(스위스), Quintiles(영국) 등연간매출액2조원이상의다국적기업인반면, 국내상위수준의공공시험· 분석기관은평균매출액이200억원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임(외국계의1% 수준)

이번에장비활용 혁신운동에참여한산자부유관 69개 기관(보유장비17,000종)에서는절반에가까운 장비(8,200종, 48%)를보다 활용도가높은타기관에이관또는기관간문턱을낮추고공동활용하기로 하는 실천적나눔운동을전개하기로하였는데, 그중6,700종은공동활용, 1,500종장비는타기관에이관하는것이다.

\* 실천적인공동활용시스템은별도로완료하여'08년 중부터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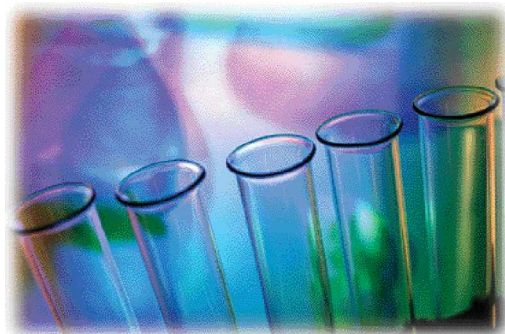
특히, 기술표준원원산업환경변화에능동적대응을 위해 정책업무를확대하고단순업무는축소하기로 방침을정하고, 시험· 연구업무행에활용하던1,200여종의장비(총보유2,000종의60%)를과감하게이관하기로결정하여범을보였다.

장비이관협약이체결됨에따라시험장비는시험검사능력의제고를위해시험· 검사기관으로(5%), 연구장비는산업정책목적상사업성과의매가를위해R&D 지원기관으로(15%), 범용과학장비는기술인력의교육· 실습용장비로활용하기위해공공, 전문대학등교육기관으로(10%) 이관하였다.

이번이관의특징은장비의용도별특성을고려하여분야별유사장비를그룹핑하여최적의대상기관에 집중배분함으로써장비활용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 있도록한 것으로장비 지원이시급한8개 기관에는20억원상당이상장비를지원한다.

\* 국제환경· 안전규제응을위해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5개 시험· 검사기관에76종(156억원), 부품소재산업육성을위해대우기계부품연구원2개기관에132종(58억원), 이공계실무교육내실화를 위해경기공업대학에87종(27억원)을집중지원

\* 지역간장비의수요불균형해소위해 지역소재기관에 우선분배특징



제1회 공산품 안전의 날 행사



기술표준원은공산품안전문화조성하기위한일환으로공산품관련업계, 학계, 시민단체의전문가와초등학교어린이등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11월 16(금)일KOEEX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제1회공산품안전의날행사를 개최하였다.

제1부기념식에서는, 사전예방안전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실시하여안전한국민생활환경을만드는데기여한공산품제조업체, 단체, 지자체, 시험기관 유공자에대한 표창과어린이가바라본공산품 안전의식에대한 포스터공모 우수작에대한 시상식이있었다.

또한, 공산품에대한 안전정보를기업과소비자에게 알기 쉽게제공하기위해기술표준원에서약 2년간 준비한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대한시연회도 가졌다. 이번기념식에서최갑홍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세상을만들어가기 위해서는민·관이함께 협력하는네트워크를구축해서안전문화를확산시켜가야함을강조하였다.

제2부공산품안전혁신역량강화워크숍에서는, 기술표준원유동주생활용품안전팀장평신여대허

경옥교수가주제발표를하고관련업계, 지자체, 시민단체, 시험기관전문가와함께 공산품안전관리 발전방안과시장감시체계의효율적운영방안을도론하였다.

유공자표창은불법공산품유통단속을통하여국민의안전을지키고, 우수품질공산품을적극홍보하여안전문화조성에기여한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의 김규태씨등 10명이 산업자원부장관표창을, 시험검사를통하여안전한공산품유통과공산품 안전관리제도정착에기여한공로로한국화학시험 연구원의김진홍과장등 14명이 기술표준원장표창을받았다.

어린이안전포스터경연대회영예의대상은어린이 다섯명이손을잡은모양안에KPS 마크(공산품 안전마크)를그려넣어공산품의안전성을추구하는 내용을표현한서울 성내초등학교학년의안도영 어린이가차지하였으며, 금상3명, 은상3명, 동상3명, 장려상5명등 총 14명이수상하였다.

\* KPS마크: Korea Products Safety

아울러, 부대행사로서어린이들이체험을통해 안전과 계량표준의중요성을쉽게 이해할수 있도록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11월 18일까지4일간COEX 인도양홀에서어린이안전·계량·측정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안전체험관에서는연필·지류의위해성(폼알데하이드) 시험, 물휴지등의형광증백제검출시험, 안전한제품알아보기, 장난감총의위험성체험하기, 운동용 보호장구를바르게착용하기등을 교육하여부모님과어린이의안전의식이한층성숙될것으로 기대된다.

\* 형광증백제 함유제품이니휴지등을 회계만들어

상품성을 높이는 표백제로써, 자주 접촉하고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함

계량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통 장터에서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하던 계량기를 이용한 상거래를 체험하도록 하여 계량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측정체험관에서는 논리의 크기 측정, 색채 측정, 캐논 슈터에 의한 속도 측정, 줄다리기에 대한 힘 측정 등을 통해 측정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량문화재전시관에서 최근 문화재로 등록된 계량기 등을 전시하여, 어린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우리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도 화지에 그려보는 포스터 경연대회 출품작도 체험 행사장에 전시하여, 참가 어린이 및 일반 관람자들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 중국산 구슬 장난감 '리콜' 실시

중국산 구슬 장난감 '쥬쥬워터비즈'에 대해 '리콜' 실시가 발표되었다.

호주와 미국은 8일 중국산 구슬 장난감에 들어있는 구슬을 삼킨 어린이 5명이 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해당 제품 공급사에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은 구슬에 코팅된 화학재료가 인체 내에서 신종 마약 성분인 GBH(홍분제일증)로 변형되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리콜 조치된 제품은 호주에서 '빈디즈(Bindeez)', 미국 '아쿠아닷(Aqua Dots)'의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다.

이에 대해 기술 표준원도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은 (주)영실업에서 수입, 쥬쥬워터비즈라는 상품명으로 약 50,0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까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주)영실업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량 무상 교환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키로 발표하였다.

\* 리콜 관련 문의: (주)영실업 안전콜 센터 3484-0710.

구태형 차장 016-595-6292)

www.youngtoys.co에서도 확인 가능

기술 표준원은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거쳐 KPSI(자율안전확인)마크 표시된 제품이냐 어린이 피해가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기관 합동으로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사이버 쇼핑몰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발견된 유해 성분은 호주와 유럽 안전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신종 유해 성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어린이가 해당 제품의 구슬을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내 안전 검사 기준은 '08년 1월부터 장난감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을 80종으로 확대, 안전 검사 기준에 반영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리콜정보 등 '클릭' 한번으로 확인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군데 담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종합적인 포털 사이트인 "Safety korea"를 11월 14일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소비가 사용하는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제품안전정보와 국내·외에서 발생한 리콜 정보 등 위해가 발생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매와 같은 제품을 구입 시 안전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제품안전검색시스템을 예 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지 확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품안전서비스 포털 시스템 구성은 제품안전법령, 기준 및 제도, 인증대상 품목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안전마당과 언론 보도, 안전뉴스, 공지사항을 알 수 있는 알림마당, 국내·외 리콜 정보, 생활속 안전,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홍보마당과 질의응답, 소비자 신고, 설문조사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참여마당을 별도로 두었으며 또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알 수 있는 교육마당을 두어 안전분야의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가 전기용품, 공산품 등을 구입 시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인증검색시스템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전인증기관과 실시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중국 제품의 장난감 등에 대한 리콜 정보와 생활용품, 전기제품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담은 생활속의 안전은 생활용품과 어린이 용품으로 구분하여 어린이에 대한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어린이 안전에 주의를 요하였으며 안전에 관한 동영상도 따로 분류하여 안전 예방 교육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제품안전에 대한 클린 신고 센터와 질의응답을 두어 소비자가 궁금하거나 문의 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가 제품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을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냉장고 성능시험, 실생활 위주로 개선

최근 냉장고가 대용량화되고 홈바 및 디스펜서 등 다용도 기능이 포함된 양문형 냉장고가 다량으로 출시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신제품 개발 추이를 반영하여 냉장고 성능시험 방법이 ISO 국제 표준 규격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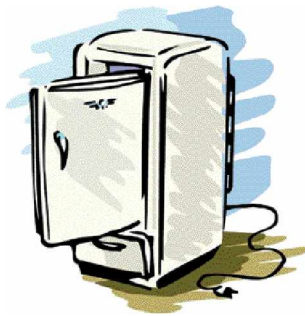
이번 규격 개편은 기존의 냉장고 에너지 소비 효율

시험방법상제상방식등이소비자의실제생활에서의 에너지사용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 있어이를국제표준에맞추어주기위한것이다.

예를들면기존에는냉장고저장실내부에식품을 넣지않은무부하상태에서시험하던방식을인조 식품을넣은부하상태에서시험하도록변경함으로써 소비전력량이실제사용조건에보다근접하게 측정되는장점이있다.

또한, 시험시주위온도를기존 30℃에서25℃로 변경하여우리나라기후조건에가깝도록하였으며, 냉장고도어의내구성시험을새로규정하여10만회의 개폐시험을하도록하였다. 또소음레벨을제품 명판 또는 사용설명서에반드시표시하도록새로 규정하고, 냉장고내부재질의냄새가보관식품에 전이되는지여부도규정하도록하였다.

이번KS규격제정작업은2006년 7월부터LG, 삼성, 대우 등 냉장고생산업체와소비자단체, 국가공인 인증시험기관등 관련이해당사자기모두 참여하여 합의된공통의견을반영한것이특징으로동 KS규격 적용시기는제품생산업체의신제품개발및 시험설비보강등 제반인증준비기간을고려하여6개월 동안의유예기간을두고2008년 4월 30일부터시



행한다

##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표준 제정

앞으로교통사고로길거리에차를세워놓고운전자간에 연성을높이며싸우는모습을보기힘들것같다. 비행기에사용되고있는블랙박스를일반차량에도 사용할수 있도록차량용블랙박스국가규격을11월 8일자제정고시함으로써향후자동차에도블랙박스장착이획기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란사고당시비행기의모든운행상황, 즉 속도, 고도, 조종사요구성등을저장하여사후에데이터를분석함으로써사고원인을알아내어장래의 사고를예방하는데사용되는" 사고기록장치"에 자동차에도이러한블랙박스를장착함으로써사고가 발생했을경우사고원인규명은물론운전자 스스로조심운전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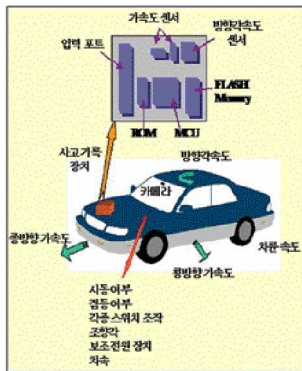
차량용블랙박스는차량의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착용유무등 관련데이터의분석으로교통사고의원인을정확히판명함으로써선량한운전자들을보호할수 있을뿐만아니라차량외부네트 워크를이용하여교통사고정보를경찰, 119구조센터에 자동 통보함으로써신속한환자후송, 교통처리등을가능케하는필수적인장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1,000여대의버스등의 상용차량에만장착되어보급이미미한실정이나, 미국은억대의 경승용차중15%가, 그리고2004년 이후출시된 승용차의80%가블랙박스를장착하고있으며일본의 경우영업용차량4만대, 일반승용차2만대등 6만대의차량에블랙박스를장착함으로써편화되는추세에있다.

특히 유럽은2010년부터모든차량에, 미국은2011

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어, 자동차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데 관련 업계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국가규격을 제정하였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경찰청 추산 매년 발생하는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제막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세계 시장에서 IT 강국인 우리의 시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차량용 블랙박스 구성>

**CJK-SITE<sup>®</sup> 국제표준 협력체 창립 총회**

한중일(CJK-China, Japan, Korea) 정보· 전자산업분야의 주요단체, 기업, 연구소, 대학 중심이 된 국제표준화협력체(CJK-SITE<sup>®</sup>)가 민간주도로 창설되어 IT· 전자기술과 관련된 한중일 3국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협력체명: CJK-SITE (standards cooperation on IT and Electronics)

\* 한국사무국(Coordinator): 한국표준협회(총괄), 전자산업



진흥회(지원)

지난주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북경에서 한 중일 정보· 전자산업계 주요 관계자 70여명이 모여, CJK-SITE 1차 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국제표준화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해증진, 국제표준공동제안등과 같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협력체를 구축하였다.

특히, 동총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3국 정부대표기구인 기술표준원(KATS), 일본경제산업성(METI), 중국표준원(SAC)이 Adviser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기존 조연설에서 민간 중심의 CJK-SITE 활동을 지원할 것을 표명함에 따라, 동협력체가 사실상 3국의 국제표준화 지원단체로 공식 발족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가전, 반도체 등의 정보전자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표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한중일 협력체 구축이 국제표준화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례로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인 IEC<sup>®</sup>의 각 위원회에 대해, 한중일 3국의 간사수임율은 유럽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CJK-SITE의 1차 협력분야는 그간RFID, 홈네트워크 등 7개 분야가 논의되어, 홈네트워크및디자인오토메이션의2개 Ad-hoc(특정 이슈를논의하는그룹)이 이번 총회와 같이 출범하였고 RFID 및 유해물질마킹의 2개 분야는 3국 산업계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Ad-hoc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오토메이션과 유해물질마킹



의 협력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제안한 것이다.

- \* RFID의 경우, 우리 모바일RFID 분야에서 10여종의 국제 표준제안을 준비하고 있어, 한중일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 유해물질마킹의 경우,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국·간 혼선 없는 거래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마킹 사용이 필요함

기술표준원은 본 CJK-SITE의 창설이 국제표준화저변 확대가 필요한 우리 정보·전자산업계에 준축의 의식을 한 단계 높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제안 확대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위상강화로 연결될 것이라 평가하고 본 CJK-SITE의 활동경과에 대해 언급

### 2007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기술표준원은 품질혁신, 고객감동실현 등을 통하여 탁월한 품질경영성과를 거둔 63개 기업을 2007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은 뛰어난 제품생산체

제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전략기확 등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체를 발굴·모델화하고, 이를 산업부문에 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은 품질혁신시스템, 제품개발, 인재육성 13개 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의 확대에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고객지향의 품질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대회”는 기획·실행·평가·혁신이라는(PDCA) 품질경영기법으로 평가기관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매년 참여기업이 증가 추세이다.

\* 선정 기업 수: (05) 46개 → (06) 58개 → (07) 63개

특히 올해는 해외(중국)에 입주하고 있는 (주)영동 전자제품창과 두루산업(주) 심천공장 2개의 국내 기업도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 선정기업은

- 전기· 전지분야에 휴대폰 품질관리의범주를과거 성능위주에서고객사용편의성으로까지확대한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10개사
- 기계· 금속분야에지속적인품질경영혁신운동으로 10년연속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현대엘리베이터(주) 등 1개사
- 공기업분야에세계에서유일하게경수로및 중수로 연료 제조기술력을모두보유한한전원자력연료(주) 등 12개사
- 화학분야에금호폴리캠(주) 등 1개사, 기타(건설, 식품등)분야에(주) 윈스피이 등 9개사가 선정되었다.

\* 규모별 선정기업분포: 31개중소기업(49%), 20개대기업(32%), 12개공기업(19%)

「2007년 품질경쟁력선정 기념식」이 11월 7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제회의장에서 우수사례 심포지엄과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기술표준원장(최갑홍)은 품질을 단순히 전통적인 가격, 생산, 관리 등의 개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만족하는 고객 만족의 품질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하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고품질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업에 당부하였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이들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2007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계획이다.

국가 산업발전의 고도화 및 경쟁력 확보의 근간인 정밀 산업기술과 측정기술의 진흥에 공이 큰 기업 및 임직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가 '07.11.21(수) 11:00,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기술표준원 최갑홍 원장을 비롯하여 정밀기기 업체와 계량 측정업체인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970년을 시작으로 금년에 37회째를 맞이하는 대회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계량측정협회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정밀기술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지닌 대회이다. 이날 행사에서 초정밀 반도체 장비 개발로 D-RAM 양산체제 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주승일(주) 테스 대표이사, 가동탑산업훈장을, 또한 업체의 교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 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주) 에이치시타원 용택 연구소장이 산업포장을 받는 등 52명의 유공자가 훈장과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정밀 측정기술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케이티아이시시(주) 대표이사 문종배 등 51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술표준 2007. 12